

사람인들 이름 없는 일개 주민의 신세 따위에 관심을 두겠나? 또 아무리 여기서 행복하게 산들, 어느 누가 사람들에게 외면받으며 가난하게 살고 싶겠나? 사람들은 위인들이나 왕들의 이야기만 알고 싶어 하지, 아무에게도 쓸모가 없는 데 말이야.”

내가 말을 이었다.

“어르신, 어르신 풍채나 말씀하시는 품으로 미루어 보건대, 깊은 연륜이 짐작되고도 남습니다. 혹 시간이 되시면 예전 이 산간벽지에 살던 사람들에게 관해 알고 계신 것을 들려주십시오. 아울러 세상 편견에 사로잡혀 때가 묻을 대로 묻은 사람도 자연과 덕성이 낳은 행복에 대해 듣길 좋아한다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그러자 노인은 이런저런 정황을 떠올리려는 사람처럼 한동안 이마에 손을 짚고 있다가, 내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1726년, 라 투르라고 하는 노르망디 출신의 한 젊은이가 프랑스에서의 군 복무 지원도 허사로 돌아가고, 가족에게 원조를 요청했으나 이마저도 소용이 없자, 돈을 벌어들일 작정으로 이 섬에 올 결심을 했네. 진심으로 사랑하는 한 젊은 여인과 함께였고, 그녀 역시 그와 깊은 사랑에 빠져 있었지. 고향 땅에서 그녀는 부유하고 유서 깊은 가문 출신이었지만, 그는 지참금 하나 없이 비밀리에 그녀와 결혼했다네. 그녀의 부모가 남자가 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결혼을 반